

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칼빈대학교

“주님께 저의 마음을 온전히 바칩니다. (My heart I offer to You, Lord, promptly and sincerely.)” 칼빈대학의 강 의실. 회의실. 캠퍼스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슬로건이 다. 최근에는 ‘지성을 일구는 대학(Minds in the Making)’이라는 모토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마디에 135년 역사의 칼빈대학이 추구하는 신앙과 삶과 학문의 통합이 담겨있다. 학생 수 4000여 명, 교수 수 390여 명의 칼빈대학교는 32개의 학과에서 100여 전공을 개설 하고 있는 북미주 기독교대학협의회(CCCU, Council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) 소속의 대학으로 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. 공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과 정이 없는 학부 중심의 대학으로서 뛰어난 학부교육을 사명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. 입학 시에 학생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거의 100% 신앙인이며 학생 들의 약 50% 정도가 소속 교단인 개혁교회(Christian Reformed Church) 출신이며 나머지는 폭넓은 개신교 교 단 출신의 학생들이다.

오랫동안 복음주의 진영은 우수한 목사들은 배출하였지 만 우수한 학자들을 양성하지는 못하였다. 그러나 최근 35년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역사 적 평가에 걸맞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 내의 학자들이 학 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 들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(Nicholas Wolterstorff), 앨빈 플랜팅가(Alvin Plantinga), 그리고 리처드 마우(Richard Mouw)는 모두 칼빈대학의 학부와 교수 출신이고 조 지 마스덴(George Marsden)은 칼빈의 교수출신, 마크 놀(Mark Noll) 및 데이신 헤치(Nathan Hatch) 교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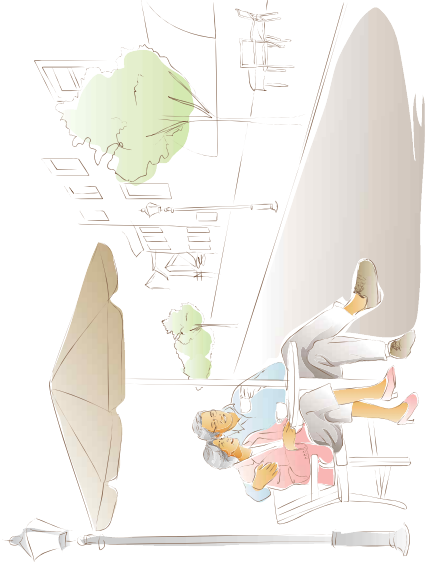


한양시 인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, 인동대학교 고려정책/글로벌협력센터장을 역임했으며 IEE와 SPC 회원이다. 통합연구학회 부회 장, 기독교학문연구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.



휘트 출신으로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자타가 인 정한다. 이처럼 칼빈대학은 복미의 기독교 정신의 흐름 을 선도하고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의 모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. 현재 미국의 각 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을 주도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칼빈 출신이거나 직간접적 으로 칼빈대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. 세계관적 분석과 비판을 통한 기독교적 학문의 추구가 칼 빈대학의 모든 전공 영역에 걸쳐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된 다. 비록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 나는 것은 아니지만, 칼빈대학의 모든 교수는 자신의 전 공과 신앙의 통합을 보여 주어야 한다. 학생들도 세상학 문외의 주장 비박에 깔린 가정 또는 전제를 추출하고 분석 하는 과정을 통하여, 세속적 주장들을 기독교적 관점에 서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주장들이 자신의 믿음을 유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.

칼빈의 역사학자인 제임스 브라트 교수는 진정한 기독교 대학에 대하여 “채플이나 성경과목의 필수화, 봉사활동의 장려,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, 기독교적 용어로 미화된 중산층적 품위 배양, 기독교적 신념 의 세련된 표현 혹은 학부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. 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. 수업이 곧 채플이 되고, 교수의 연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,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부터 교과목의 마무 리까지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고, 그리고 신앙 원칙이 전 문교육을 인도하게 되어야만 진정한 기독교 대학교육이 다” 고 한다.



Worldview Special 나이 들을 생각하다.

실은 날들에 대한 감사를 기쁨에 품어야 할 때다. 그런데 여전히 아프다. 왜 무엇 때문에? 지혜의 추억을 그리고 희망을 넘겨주고 이제는 가벼운 걸음을 경어야 할 때인데, 성경은 '나이' 들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? 나이 들에 대해 질문해 본다.